

광주·전남지역 대학 ‘기상학과’ 신설 시급

농어업·조선 등 지역 특성 맞는 기후 전문가 양성 돼야

전국 7개 대학 200여 명 배출 인력 태부족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기상이변 등을 연구하는 인력이 태부족, 대학에 기상 전공학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지성·효우·돌풍·폭우·폭설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를 연구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과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호남지방의 경우 기상 여건에 따라 ‘희비’(喜悲) 교차가 큰 농·어업, 건설·조선산업 등이 지역산업 중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 해줄 연구기관이나 인력 양성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주)K-웨더 등 국내 12개 민간 예보사업자가 조선·건설·항해·항공 등에 필요한 컨설팅과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련 업계 시장이 연간 100억원 이상으로 날로 확장되고 있으나 인력과 기술 부족으로 지역에 기

반을 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반면 ▲서울(서울대·연세대) ▲부산(부산대·부경대) ▲대구(경북대)

▲강원(강릉대) ▲충청(공주대) 등

타지역에선 7개 대학에서 연 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 기상·천문연구원 등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주고 있다. 이들은 전문 연구기관 외에 기상 관련 업체에 진출한 뒤, 지역 기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재난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강릉대의 경우 지난 1989년 ‘환경 대기과학과’를 신설했으며 폭설 피해가 잦자 산악지형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 대설예보 모델’(2002년~2005년)을 마련, 연간 500억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 진기범 청장은 “기상 전문가 수요는 기상청·환경연구원·항공회사·천문대·공군부대 등

일부에 국한됐던 과거와 달리, 건설·유통·조선·농수산·전문직 공무원·레저업체 등 전 산업으로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며 “기상학과 설립은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데도 적잖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대 사범대 류창수(지구과학과) 교수는 “5년 전부터 기상 전공학과 설립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 때문에 학과 신설이 계속 미뤄져 있다”며 “호남지역은 태풍·돌풍·폭우·폭설 등 ‘악 기상’의 전진 기지로, 대학들이 기상 전문인력 육성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때”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1996년~2005년) 기상이변으로 인한 인명(사망·실종) 및 재산 피해는 ▲광주·전남 104명(이재민 1만9천 140명), 1조4천558억원 ▲전북 41명(이재민 3천799명), 5천375억원에 달한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기상 관련학과 졸업생 어디로 가나

산업체 수요 확산…광주·전남 6년간 21명

최근 기후와 환경, 우주과학과 학위수여 등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기상 영역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상 관련 학과 졸업생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천문연구원·기상 연구소·환경연구원·공군 기상 장교·항공 우주 산업체·지역 천문대·항공회사·민간 예보업체·대기업 기상 담당·항공회사 등 다양하다. 하지만 서울대 등 7개 대학에서 졸업하는 200여 명으로 절대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지역 기후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배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지역 전문가 육성원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적극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남대 5명 ▲복포해양대 4명 등 전체의 5.7%인 21명뿐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다른 대학에선 ▲공주대 59명 ▲강릉대 50명 ▲경북대 47명 ▲부경대 46명 ▲부산대 45명 ▲서울대 25명 등의 학생들이 나왔다. 이는 기상 관련 직종의 경우 기상 전공학과 졸업생 또는 기상기사 자격증 취득자에 한 해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내에서 위층에서 시끄럽게 대화하는 안모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돼 막다른 하던 중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자신의 손을 잡아끌던 안씨의 오른팔을 문 혐의로 기소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지역 기후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배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지역 전문가 육성원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적극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손목 잡혀 끌려가다 팔 깨물면 정당방위”

대법원 3부(주심 안희태 대법관)는 상대방의 폭행에 맞서다 이빨로 상대방의 오른팔을 문 혐의(상해)로 기소된 이모(여·62)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내에서 위층에서 시끄럽게 대화하는 안모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돼 막다른 하던 중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자신의 손을 잡아끌던 안씨의 오른팔을 문 혐의로 기소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지역 기후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배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지역 전문가 육성원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적극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쓰러진 벼 세우기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에서 농민들이 2일 폭우에 쓰러진 벼를 세우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9월의 첫 번째 주말과 휴일인 1~2일, 호우특보가 내려진 광주·전남지역엔 영광 199.5mm를 최고로 신안 175mm, 장성 95.5mm, 광주 84.5mm 등의 많은 비가 내렸다. 광주·전남 지역은 3일부터 비 소식 없이 원연한 초기를 날씨가 이어지겠다.

/장성=위지령기자 jrwi@kwangju.co.kr

폭우에 잠긴 주말·휴일 침수·교통사고 등 잇따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주말과 휴일, 주택이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염모(57)씨의 한옥 지붕이 무너지는 등 주택 3채 일부가 붕괴됐다. 또 이날 오후 5시께 신안군 임자면 진리 김모(33)씨의 집 등 주택가가 호우로 침수됐다.

2일 새벽 3시55분께 강진군 성전면 월령리 앞 교차로에서 목포 방면으로 달리던 소나타 승용차가 빗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3m 아래로 구르면서

차에 불이 나 운전자 강모(44·목포시 상동)씨 등 2명이 숨졌다.

또 이날 오후 2시께 곡성군 석곡면 보성강 다리에서 서로(46)씨가 몰던 트럭이 다리 밑 10여m 아래로 주락, 서씨가 다치는 등 주말과 휴일 10여 건의 빗길 교통사고로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6시40분께 여수시 삼산면 앞 해상에서 선원 10명이 탄 경남 사천 선적 24t급 어선 ‘2003 이성호(선장 차모·49)’가 3m 높이의 파도에 전복돼 1명이 죽고 1명이 실종됐다. /여광록기자 kroh@

광주 운암동 주부 살해 용의자 붙잡혔다

20대, 전국 돌며 강도

광주 주택가에서 40대 주부를 살해하는 등 전국을 돌며 강도 살인 등을 저지른 20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2일 “강도 살인 혐의로 수배 중 경남 진주에서 붙잡힌 안모(29·경남 진주시)씨가 지난 달 28일 광주서 발생한(본보 8월30일자 6면) 40대 주부 피살 사건 용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8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동운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주부 A(43·광주시 북구 운암동)씨의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광주에서 우연히 만난 A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안씨는 지난달 14일 부산시 사상구 강전동 북부세무서 옆 노상주 차장에서 택시 운전기사 김모(64·서울시 동작구)씨를 살해한 뒤 김씨의 신용카드에서 현금 52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조선소에 웬 폭약?

진도경찰은 2일 조선소 건립을 둘러싸고 어업권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 집회 현장에 산업 폭약을 설치한 하모(42·진도군 군내면)씨에 대해 화약류 단속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달 14일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K조선소 앞에서 열린 어업보상 요구 시위 현장에 터파기용 다이너마이트 폭약

‘어업권 보상’

주민 자작곡

‘뉴마이트 플러스’(지름 25mm·길이 25cm·무게 125g) 5개를 설치한 혐의다.

하씨가 설치한 폭약 5개는 한꺼번에 터뜨릴 경우 0.5t의 암석을 깨뜨리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하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조선소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폭약을 훔쳤으며, 이날 집회 현장에 가져다 놓은 뒤 마치 조선소 측이 설치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하씨는 1개월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죄씨를 만나 교제해 오던 중 최근 의심을 살 만한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오자 홍집에 손찌검을 했다고,

○·당당 경찰은 “죄씨가 고제 기간 동안 두 차례나 더 맞았다고 진술한데다 처벌을 강력히 원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설명.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문자메시지에 ‘벼람’의 심여친 폭행

○·누군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바람을 피운다면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유치장 신세.

○·2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9)씨는 지난달 31일 밤 11시15분께 북구 신안동 N모텔에서 여자친구 최모(22)씨의 휴대전화에 ‘자기야 어디야’라는 문자 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보고 둔기로 얼굴과 머리를 세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조선소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폭약을 훔쳤으며, 이날 집회 현장에 가져다 놓은 뒤 마치 조선소 측이 설치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당 경찰은 “죄씨가 고제 기간 동안 두 차례나 더 맞았다고 진술한데다 처벌을 강력히 원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설명.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C&C 건설

C&C 건설

C&C 중공업 임원·경력사원 모집

인력양성 및 인력개발

C&C 중공업